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혁남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언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추켜세우기와 노골적 지지, 반대로 상대 후보에 대한 깎아내리기와 훔집내기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 써 유쾌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흔히 권력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개에 비유 하곤 한다. 여기에는 모두 4마리 개의 유형이 있다.

먼저 권력의 낭을 감시하는 파수견(watch dog), 권력 감시를 넘어 사사건건 권력을 물어뜯어 권력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공격견(attack dog), 이를 개와는 반대로 권력의 총애를 받기 위해 꼬리치는 애완견(lap dog), 권력에 꼬리치지는 않으나 그저 순종하고 잘 따르는 안내견(guide dog) 등이다.

공격견은 자차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며, 안내견과 애완견은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고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권력을 건전하게 비판, 감시하는 언론의 파수견 역할이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대체로 지난 1960년대까지 우리 언론은 나름대로 파수견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1970년대 유신정권을 거쳐 5

공정권시대에는 애완견 역할로 전락하였으며, 6공화국과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때에는 안내견 역할이 강했던 게 우리 언론이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보수신

신화의 주역이라는 점을 장황하게 보도하였다.

또한 BBK 사건,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 그리고 자녀 위장 취업 등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과거 10년 동안 침체되었던 경제를 회복적으로 살려놓을 적임자임에 틀림없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였다.

심지어 보수신문의 한 언론인은 칼럼을 통해 '요즘 나라에는 어떤 희망과 설렘'이 출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부터는 무언가 안심할 수 있고, 살 될 것 같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덕담을 나누

이 땅의 정치에서 지우자. 노무현 게이트에 얹힌 돈의 성격과 액수를 보면, 그야말로 밥벌수준이다. 그저 노후자금인 것 같고, 가족의 생계형 뇌물수수 수준이다. 그래서 더 창피하다. 2~3류 기업에서 얻어온 것이 더 부끄럽다.

정당 대변인의 논평이 아닌 자칭 이 나라 최고 정론지 대표 언론인의 글치고는 지나치게 의도적이고 공격적이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한 달 후에 부임이 바뀌어서 스스로 물을 던지고 만다. 일찍이 나폴레옹 황제는 '전개의 종검보다 단 4개의 적대적 신문이 더 무섭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날에도 꼭 맞는 말이다.

언론과 권력이 유착되어서도 안 되지만 사사건건 서로 물어뜯어서도 안 된다. 권력과 언론은 항상 견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게 바로 언론의 파수견 역할이다. 이제라도 우리 언론은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인 공정성, 객관성으로 돌아가 정직,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는 올바른 저널리즘을 회복해야 한다.

앞으로 20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언론은 새로운 당선자에게 과연 어떤 미사여구와 수식어를 동원하여 또 다른 용비어천가를 목놓아 불러재길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용비어천가 유감

문들은 파수견을 넘어 공격견으로 돌변해 정부를 끊임없이 물어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공격견부터 애완견까지 네 가지 유형의 모든 개들이 혼재하여 존재하고 있다.

5년 전인 2007년 12월 19일,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우리 신문과 방송들은 새로운 대통령인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힘차게 합창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끊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불굴의 용기와 끈기로 이겨낸 일로 시작하여, 대학시절 학생운동으로 투옥됐을 정도로 투철한 민주 의식과 애국심을 갖고 있으며, 현대건설

고...마치 함박눈이 내린 아침 같다... 나라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기대감이 온 땅에 퍼져있다.'고 벽차오르는 감각을 주체하지 못하기까지 하였다.

주인의 등극을 온몸으로 축하한 이 언론인은 5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2009년 봄,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자 보수언론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창피주기와 물어뜯기 계속됐고, 4월 27일자 조선일보의 한 칼럼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법정에 세우지도 맡고 빨리 노무현을

혹에 잘 지켜왔던 식이 조절도 실패하기 쉽다. 당뇨환자의 식이 조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영양 공급과 표준 체중 유지이기 때문에 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는 설탕이나 꿀이 들어간 단순당 섭취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되, 칼로리를 제한한다.

굶어질에는 차운 바깥 기운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운동도 가급적 실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요가 등 가볍고 규칙적인 동작이 반복되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다. 단, 짧은 순간에 큰 힘을 주어야 해서 갑자기 혈압을 높일 수 있는 턱걸이, 팔씨름, 역도, 씨름, 레슬링, 겸도, 실내골프 등을 피하도록 한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켜 혈압을 높이므로 반드시 금연하고 술을 끊어야 한다.

식이조절과 몸관리를 통한 혈당조절과 함께 혈압관리까지 계율화에서는 안 된다는 매번 같은 조언에 환자들은 지친 기색을 보인다. 당뇨병은 충치를 뺏아내듯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당뇨·고혈압 환자 콩팥건강 주의보

새로운 판로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된다.

농산물의 판로확대란 결국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새로운 고객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우체국과 함께하는 e-커머스는 시도해 볼만하다.

전자상거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춰 생산자도 기존의 판매·포장 방식을 탈피해 저중량·소포장으로 판매방식을 변경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허리 볼 수 있는 포장속임(위에는 좋은 상품으로 배치하고, 아래부분에는 좋지 못한 상품을 깔아둠) 등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되면 결코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주민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성우체국에서는 앞으로도 지역농가들과 e-커머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민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성우체국에서는 앞으로도 지역농가들과 e-커머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우체국 총괄국장〉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야말로 멀사봉공의 정신으로 달라붙는 그들의 국가관과 철저한 애국심의 밑바탕. 국가 위기 때 너나 할 것 없이 풀풀 풍기는 정신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에 비해 우리는 어떤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방을 유리로 둘러치는 건물이 대유행이다. 이런 유리건물일수록 외관상 더 호화로워 보이고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외관만 멀어지면 호화청사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가 된다.

국민 세금을 낭비해 '호화 짐통'을 만드는 이런 공공기관 유리건물은 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런 흐트러진 익식이라면 아무리 발전소를 많이 지어도 결코 전력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유상규·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전기 낭비 많은 유리건물 건설 제한 필요하다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공공기관 건물이 유리로 마구 지어지는 걸 그냥 둘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유리온실들은 콘크리트 건물보다 열손실이 7배나 많다고 한다. 한여름은 물론이고 지금 같은 혹한기에는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낀 전기를 죄다 먹는 것이다.

국민 세금을 낭비해 '호화 짐통'을 만드는 이런 공공기관 유리건물은 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런 흐트러진 익식이라면 아무리

발전소를 많이 지어도 결코 전력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도심에도 유리로 장식된 주상복합건물이

일까. 그건 지금 전국에 지어져 있거나, 혹은 지금도 바보처럼 건축승인을 내줘서 열심히 짓고 있는 유리건물이 바로 전기 먹는 하마이다.

참고로 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요즘 전력난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온 국민이 절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 덕분에 일본의 전력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도심에도 유리로 장식된 주상복합건물이

시설

영광원전 3·4호기에도 '啭통부품'이라니

영광원전이 말 그대로 '부실 도가니'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 5·6호기는 짹통부품 사용으로, 3호기는 제어봉에 균열이 발생해 가동이 중단된 데다 이번에는 53개 품목 919개 부품이 위조된 품질검증서로 납품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역민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에 있는 '원전부품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계전기·퓨즈 등

53개 품목, 919개 부품이 위조된 품질

검증서로 납품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에 확인된 미검증 부품 중 원전에 사용된 부품은 34개 품목, 587개로 영광

원전 5·6호기기에 이어 3·4호기와 물진

3·4호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은

모두 290개 품목에 8601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170개 품목 5820개가 원전에

사용됐고, 영광원전에만 무려 5595개의

위조부품이 설치됐다. 이쯤되면 영광원

전은 '가짜 부품 원전'이라고 해야 옳을 듯 하다.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위는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겸증률을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민관합동조사단과 안전기술원이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문제는 안전위가 철저한 점검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광원전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위조부품이 드러나자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원전 고장에 이어 위조부품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사고 소식으로 패닉상태에 빠진 것이다.

원자력 안전위는 하루 빨리 영광원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짹통부품 사용 경위와 안전성 등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위조부품 균열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구매·계약 및 하청업체 관리 등 납품관련체계 전반에 대해 종합적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고질적 국제결혼 사기, 수술 시급하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정착된 지는 이미 오래다. 국제결혼 비율이 2004년 이후 해마다 11.1~13.6% 사이에서 오르내릴 정도로 일반화됐다. 농어촌지역에서는 비중이 더욱 높아 신랑 10명 가운데 4명꼴로 외국인 신부를 맞는다.

이들은 이제 농어촌사회를 지탱하는 한 죽이자 국민의 일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다문화사회가 자리한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부작용도 심각하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내국인의 차별과 이를 보호할 법·제도의 부실, 사기 결혼 등에 따른 가정 내 불화와 갈등으로, 이혼과 가출이 급증 추세에 있다. 실제로 아시아 각국에서 전남지역에 시집을 온 여성들의 46.6%가 이혼을 원한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충격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가 결혼증개업소의 사기로 인한 심리적 좌절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 현지에서의 결혼 과정에 경제적 여건과 건강상태 등을 담은

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앤슨 스타 아널드 슈워제네거도 흰외정사로 아이까지 낳아 케네디가의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다. 드라이브 아이젠하우드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중 운전병이었던 영국 출신 모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했다.

'영웅'으로까지 미화되고 있는 이들이 이 외계에 파멸에 이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륜에 빠져드는 것일까? 여러 학자들은 능력있는 남성이 많은 수의 부인을 거느렸던 역사적 관점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또 권력이 많아지면서 외부 노출이 많아져 자연스레

無等鼓

미국이 스캔들로 휩싸이고 있다. 정보국장과 군 장성 등의 부적절한 여성 관계 등이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최근 미국 '전쟁 영웅'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섹스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자서전 집필을 도운 브로드웰과 불거진 흰외정사 스캔들은 국가 기밀유출 논란으로 확산되고, 그의 후임으로 아프가니스탄 사령관을

지난 9월부터 '국제증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구멍투성이에 솔방망이여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비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국제결혼 사기발본색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가 결혼증개업소의 사기로 인한 심리적 좌절 때문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궁정동 안가에서의 항응은 '권력과 스캔들'의 부정할 수 없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오바마 현 대통령도 증명되지 않아 허지부지 끊임있지만 베리 베이커라는 여

여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권력과 스캔들

한눈에 판다는 설명도 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과거사가 약점으로 거론된다.

그 가운데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스캔들로 1998년 당시 탄핵위기까지 물렸다.

오바마 현 대통령도 증명되지 않아 허지부지 끊임있지만 베리 베이커라는 여

여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